

지역 소식통

완주군민에 마스크 배부

완주군이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

25일 완주군은 지난 9일 면 마스크와 일반마스크 4만2000매를 전 세대에 배부하는데 이어 면 마스크 9만5000매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전 군민에게 추가로 배부된다. 확보된 마스크는 일선 읍면과 마을 이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세대별 방문, 관리사무소 방문 수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배부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

완주군이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완주군은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1000만 원을 확보, 농촌일자리 거점센터를 육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는 농촌 지역의 농식품 유통·가공, 6차 산업, 농촌관광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고 일자리 현황 조사, 고용촉진지원,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과 박람회 개최 등 농촌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농촌인력중개와 시범사업인 농가인력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 봉동 등폐산 산책로 조성

완주군 봉동읍 등폐산을 시작으로 센트럴카운티 아파트까지 산책로가 조성됐다.

2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등폐산(한국프림 뒤쪽)을 시작으로 청원초등학교, 센트럴카운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책 소요시간은 40~50분정도이다.

기존 등폐산 산책로에서 센트럴카운티까지 구간을 연계한 것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주민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산로 계단과 보행매트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강화

완주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방역 강화 지속할 것  
정철우 부군수, "해외 입국자로부터 차단이 중대 과제"

완주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 이후 중대과제로 급부상한 해외 입국자의 관리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25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철우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관리기금 신속 지급과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대책 등 17대 현안을 논의했다.

정철우 부군수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에 이어 각국의 확진자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로부터의 전파 차단이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절대 방심하지 말고 긴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군수는 이어 "정부도 해외 입국자 검역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온 중국인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해 지금까지 잘 해온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강화

를 위해 시설과 인력을 늘리고 자가 격리자 관리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도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명단을 최대한 빨리 입수한 후 진단검사 안내와 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 학생들은 대학 측과 연계해 입국부터 수송과 격리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기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역소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에 앞서 읍면 방역을 올 4월까지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총 25명의 방역인력 투입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이종복 기자

지역경제 살리기·방역 등 718억 추경예산 확정

김제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228억원 규모 편성

김제시는 지난 24일 2020년도 본예산 8,322억원보다 718억원(8.63%↑)이 증가한 9,04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 확정하였다.

1회 추경 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총 228억원 규모로 코로나19라는 사회·경제적 재난 상황에 돌

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32억5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6억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지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102억원을 편성하여 위기에 직면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예방을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과 취약계층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14억을 편성하여 지역 방역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코로나19 극복위해 중소기업 긴급자금 200억 투입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김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경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총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0억원보다 두 배 상승한 규모다. 이로써 시는 올해 48개 기업 신규 선정하는 등 총 150억원의 용자를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해 용자급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용자금 이자의 3%를 보전한다.

또 김제시는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억 9600만원 교부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29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공장 조명교체 및 바닥공사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사사나 구내식당, 화장실 등 복지 편의시설 투자에 활용된다.

박준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김제시는 지난 24일부터 청렴도 향상과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2020년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은 모든 공무원이 행정내부 전산망에 로그인 자원으로 학습창이 열리며 청렴학습을 선행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교육 시스템이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윤리, 부패방지, 공직자 3대 비위(성희롱, 음주운전, 금품 함용 수수), 적극행정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핵심 공직가치를 습관화하고 청렴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가 쉽도록 시각적 요소를 다양화한 학습 콘텐츠로 구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관계자 3명이 25일 김제시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에게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요"

전북은행, 김제시 자가격리자·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전북은행 관계자 3명이 25일 김제시(시장 박준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자가격리자 및 취약계층에게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은행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김제시 예산을 운영하는 제2금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 임형곤 상하수도과장이 참석하였고 전북은행에서는 이상한 부행장, 김동현 군산지역센터장, 정준호 김제지점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선물했다. 이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

원, 의료지원, 방역 활동 등에 다양하게 쓰일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혈 캠페인, 마스크 지원,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고객들에게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상한 부행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박준배 김제시장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김제시에 힘을 보태줘 감사드립니다"며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중단된 노인일자리 활동비 5억원 선지급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완주군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3월 내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 중단됨에 따라 참여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일로 보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초 노인일자리사업 잠정 중단으로 생계유지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1035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 19사태가 예상보다 길

어짐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선지급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총 1800명으로 완주군은 3월분 활동비 27만원씩 총 5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많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선지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후 성실하게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